

‘들불의 흔적’·‘부활의 노래’...연대와 기억의 소환

은암미술관, 2026 오월 기획전 ‘들불 야학’...내달 5일까지

‘그때, 그곳’ 광천시민아파트 중심 회화·구술기록 등 조맹 문병란 ‘부활의 노래’ 육필원고·시민 참여 프로젝트 전시

5·18민주화운동의 사상적 토대가 된 들불야학 정신을 오늘의 예술 언어로 다시 불러오는 전시가 마련됐다.

은암미술관은 오는 6월5일까지 미술관 1·2층에서 2026 오월 기획전 ‘들불야학’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1978년 광주에서 시작된 민중 교육 공동체 ‘들불야학’의 역사적 의미와 연대의 정신을 회화·미디어 설치·문학·사진·영상·아카이브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조명한다.

노동자와 학생, 지식인이 함께 배우고 가르쳤던 들불야학의 실천이 이후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해 당시의 기억을 현재의 감각으로 재구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시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1섹션 ‘들불의 흔적(길)’은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광천동 일대를 중심으로 기억을 들여다본다.

철거를 앞둔 광천시민아파트의 풍경과 장소의 시간을 회화와 미디어 설치, 사진, 어반스케치 작업 등으로 풀어냈다.



박종석작 ‘윤상원 열사, 박기순 열사’

정정주 작가는 광천시민아파트라는 공간 안에 켜켜이 쌓인 삶과 사건의 시간을 설치 작업으로 시각화했으며, 김수민 작가는 현장에서 수집한 오브제를 활용해 시간이 남긴 흔적과 장소의 기억을 작품에 담아냈다.

시민 참여 프로젝트로 진행된 광주어반스케치&드로잉 회원 40명의 작업도 함께 전시돼 공동체 기억의 의미를 더한다.

2섹션 ‘부활의 노래(기억의 소환)’에서는 윤상원·박기순 열사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해 헌



시민 참여 프로젝트로 완성된 어반스케치 작품 40점.

신한 이들의 삶과 정신을 조명한다. 박종석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윤상원·박기순 열사를 주제로 한 신작을 새롭게 선보인다. 들불열사들의 얼굴과 삶의 흔적을 회화로 담아내며 전시의 의미를 더했다.

문병란 시인의 ‘부활의 노래’를 중심으로 회화와 샌드애니메이션, 아카이브 자료, 구술기록 영상 등도 함께 선보인다.

특히 1980년 윤상원·박기순 열사 영혼결혼식에 바쳐졌던 ‘부활의 노래’ 육필원고가 최근 발



정정주작 ‘형이상학적 별 26’(앞쪽) 작품과 김수민작 ‘존재는 역할을 모른다’

견돼 이번 전시에서 아카이브 형태로 공개된다. 해당 자료는 윤상원기념관 측 협조로 전시에 포함됐다.

구술기록 영상은 지역 출신 임성엽 감독이 맡았다. 김상윤·서대석·임낙평·전용호 등 들불야학 당시 강좌 활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인터뷰를 기록해 당시의 기억과 목소리를 담아냈다.

주홍 작가는 2017년 광천시민아파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인연으로 구술 채록에 함께했다. 한경숙 학예실장은 “들불야학은 특정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의 삶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연대의 실천이었다”며 “관계가 쉽게 끊어지고 개인화된 현대 사회에서 이번 전시가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은암미술관은 이번 전시가 마무리된 이후 6월 석주 박종석 작가의 ‘만인화전’, 7월 광주-대구 달빛연대프로젝트, 9월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전시 등을 연이어 선보일 예정이다. /글·사진=최명진 기자

‘오월 예술’,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민주주의

광주민예총, 국립5·18민주묘지서 ‘예술만장전’

민주주의의 상징적 공간인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동시대 민주주의를 성찰하는 제7회 ‘예술만장전-유비쿼터스 민주주의’라는 상상이 열린다.

광주민예총예술단체총연합(광주민예총·이사장 정찬일)은 2000년 5·18민주화운동 50주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10년 장기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술만장전’을 이어오고 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예술만장전’은 광주의 오월 정신을 동시대 예술로 축적·확산해온 대표 공공 전시다. 향후 광역도시 동시 전시를 목표로 단계적 확장을 추진하며 민주주의 담론의 전국적 확산도 모색하고 있다.

올해 전시는 ‘유비쿼터스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중심에 둔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확대된 시민 참여와 동시에 심화되는 권력 집중 구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일상 곳곳에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그 이면의 긴장을 ‘예술만장’이라는 집단적 시각 형식으로 드러낸다.

전시에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작가 30명이 참여한다. 참여작가들은 만장의 전통적 형식을 동시대적으로 재해석해 민주주의의 균열과 침묵, 발언의 문제를 시각화하며 오월 정신을 오늘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새롭게 풀어낸다.



지난해 ‘예술만장전’ 현장 사진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국립5·18민주묘지 입구 일대에 설치되며 시민과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정찬일 이사장은 “예술만장전은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다시 질문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사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소통과 교감으로 풀어낸 ‘관계의 가치’

김금란 송원대 교수 조각 개인전...14-27일 가톨릭평생교육원



정년퇴임을 맞은 김금란(사진) 송원대학교 미용예술학과 교수가 오랜 시간 이어온 교육과 창작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관계와 교감의 의미를 담은 작품들을 시민들과 나눈다.

오는 14-27일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갤러리 현에서 김금란 교수 정년퇴임 기념 조각 개인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교육자이자 작가로 활동해온 김 교수의 작업 세계를 한 자리에서 조망하는 자리다.

“친구가 되어드릴게요”를 주제로 열리는 전시에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따뜻한 감정과 정서적 교류를 표현한 구상 조각을 만나 볼 수 있다. 인간 내면과 관계의 의미를 ‘교감’과 ‘소통’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인다.

또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꿈과 희망을 원색



중심의 색채 대비와 형태의 변화를 통해 시각적으로 구현한 추상 작품들도 함께 전시돼 작가의 폭넓은 조형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예술을 매개로 관람객과 정서적 공감을 나누고, 일상 속에서 잇기 쉬운 ‘관계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금란 교수는 “이번 개인전은 교육자로서의 헌신과 예술가로서의 창작 여정을 함께 조명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류의 장으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묘 이장 · 개장

가족묘 조성 / 개장 / 묘지이장 / 유골함 / 자연장

맞춤형 묘지이장 전문 ☎ 문의) 062-464-3466